

사회

광주교육청 주요보직 전교조 성향 일색

인사·장학담당 등 대거 포진...진학실장에 무경험자 발령도

광주시교육청이 9월 교원정기 인사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로 주요 보직을 채웠다. 이번 인사에서 '노른 자위'로 꼽히는 중등인사 담당에 진보 성향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앞서 임명한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장학관 등 요직을 전교조 출신, 진보성향 인사들이 도맡게 됐다.

양았음에도 교육 철학은 진보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로써 광주교육의 중책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같은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게 됐다. 이미 중용된 정책 기획담당관은 교육정책, 실무에서 능통해 전진배치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교육과정과 나승렬 중등교육 장학관, 이세천 교원인사과장은 전교조 인사다. 그럼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맡은 역할로 미뤄 광주교육이 진보의 실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는 물론 학부모

들에 적잖은 혼란을 일으켰던 점에 대한 여론이다. 공교롭게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교육청에 다수 배치된 것과 때를 같이해 이같은 잡음이 있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수능을 불과 79일 앞두고 수능·진학을 담당하는 진학정보실장을 중학교 교감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 업무의 경우 대년간 노하우가 축적돼야 하는 등 유독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수능의 변수가 많다는 점에 학부모들은 예민해져 있다.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이 1개월 앞

당겨 졌고, 시험범위, 입학전형 다변화 등 변수가 많은 해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23일 오는 9월1일자로 초·중등학교 교감, 교감, 교육전문직 66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8면> 광주의 경우 초등은 교감 36명, 교감 33명, 교육전문직 4명 등 총 73명을 승진·전직·전보했다. 중등 인사대상은 교감 34명, 교감 22명, 전문직 22명, 교사 9명 등 총 87명이었다. 전남도 교육청도 공교로 27명, 승진 61명, 전보 63명 등 교감 인사와 함께 교감은 85명이 승진하고 14명이 전보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올 수능 예비마킹 금물

이미지스캐너로 채점

올해 11월10일 시행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스캐너로 채점된다.

이미지스캐너는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필기흔적을 읽어내기 때문에 예비마킹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수능 응시원서를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원서접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지난해와 같지만, 수수료 환불규정이 신설돼 수능이 끝난 후 응시수수료 60%를 환불하고 채점을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스캐너로 하는 것이 달라졌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8분, 해질 19시 11분, 달돋이 00시 33분, 달질 15시 22분. 선선한 아침. 가끔 비가 온 뒤 오후부터 개쨍. 광주: 흐리고가끔비 20/24°C, 목포: 흐리고가끔비 20/24°C, 여수: 흐리고가끔비 21/24°C, 나주: 흐리고가끔비 20/26°C, 완도: 흐리고가끔비 20/24°C, 구례: 흐리고가끔비 19/26°C, 강진: 흐리고가끔비 20/25°C, 해남: 흐리고가끔비 21/25°C, 장흥: 흐리고가끔비 20/25°C, 순천: 흐리고가끔비 20/25°C, 영광: 흐리고가끔비 20/28°C, 진도: 흐리고가끔비 20/24°C, 전주: 흐리고가끔비 20/25°C, 군산: 흐리고가끔비 20/25°C, 남원: 흐리고가끔비 19/23°C, 옥산도: 흐리고가끔비 19/2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9월 덥고 많은 비...10월부터 가을날씨

올 가을 광주·전남지역은 평년에 비해 덥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가 10월부터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11년 가을철 기상전망에서 "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겠지만 10월부터 평년과 비슷해지겠다"고 23일 밝혔다.

9월 상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순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평년(21~22도)에 비해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또 9월에는 대기불안정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평년(148~192mm)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으며, 이 같은 현상은 10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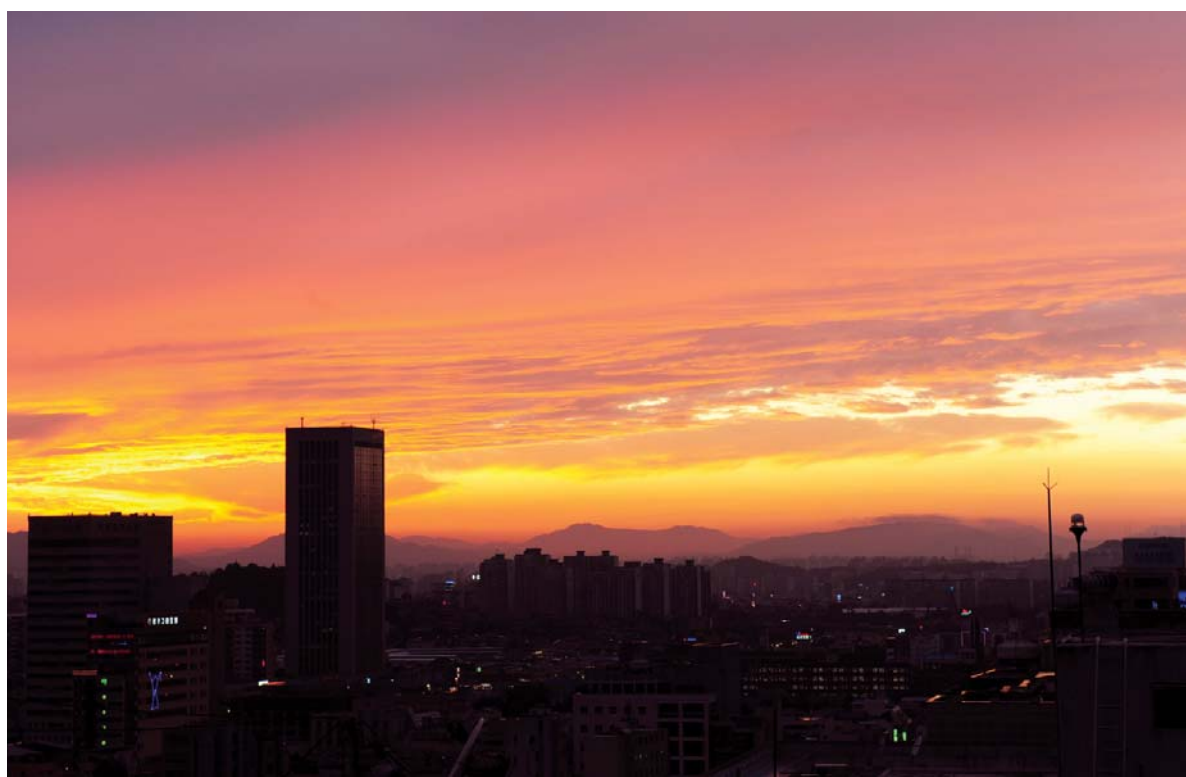
기상청은 내다봤다.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큰 일교차를 보이는 한편 평년(15~17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11월에도 역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기온은 평년(8~11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11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평년 대비 4~5도 낮아져 아침과 저녁으로 다소 쌀쌀해진 최근 날씨는 이번 주 후반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금남로의 '붉은 노을'

최근 연일 내린 크고 작은 비로 대기 상태가 깨끗해지면서 노을이 여느 때 보다 붉고 아름답게 지고 있다. 23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가지 방향으로 촬영한 노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한 듯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이종인 교수 연구비 61억 지원 받는다

항만설계기준 개선 연구

전남대 공학대학 해양토목공학 이종인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방안연구'와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61억5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최근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이 교수의 연구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인 단

위로 6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 교수의 연구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설계기준의 증대 및 해수면상승 등과 같은 설계외력의 증대에 대응하는 항만구조물을 설계 및 건설하기 위해 항만설계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요소기술과 기술지침서(안)를 마련하는 것으로, 2016년 7월까지 5년간 진행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추석 명절맞이 보청기 무료점검 안내' (Autumn Festival Meeting Hearing Aid Free Checkup Not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본점 062-227-9940,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Website: www.kjhr.com

Advertisement for '제주여행!!' (Jeju Travel!!) featuring a Star Cruise ship. Includes a detailed itinerary for a 3-day trip (95,000원) and a table of current rates (요금안내). It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Yoonam Travel (유남해여행사 1588-7429) and Arum Travel (아름여행사 1577-0419).